

# 남북한 초·중·고등학교 국어교육 통합을 위한 기초 연구\*

- 통일 대비 단계의 국어과 교수·학습 내용 선정 및 수업 분석을 중심으로\*\* -

고 정 희 · 김 종 철 · 구 본 관 · 위 현 길 · 윤 구 희 ·  
김 호 태 · 이 은 정 · 조 진 수 · 차 경 미 · 문 찬 란 ·  
김 진 아 · 심 미 진 · 민 병 곤\*\*\*

< 次 例 >

- |                                                                                      |
|--------------------------------------------------------------------------------------|
| I. 서론<br>II. 통일 대비 단계의 국어과 교수·학습 내용 선정<br>III. 통일 대비 단계의 국어과 교수·학습 실행 및 분석<br>IV. 결론 |
|--------------------------------------------------------------------------------------|

\*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2014년 11월 28일)을 받은 후 수행한 연구임.

\*\* 이 논문은 2014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육연구진흥본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남북한 초·중·고등학교 국어교육 통합을 위한 기초 연구: 국어의식 및 국어교육 체계의 차이 극복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를 바탕으로 통일 대비 단계의 국어과 교수·학습 내용 선정과 이에 대한 수업 실행 결과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 고정희(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제1저자), 김종철·구본관(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위현길(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교사), 윤구희(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교사), 김호태(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교사), 이은정(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사), 조진수·차경미(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문찬란·김진아·심미진(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석사과정), 민병곤(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교신 저자)

## I. 서론

본 연구는 ‘통일 대비 단계’<sup>1)</sup>에서 남한 학습자와 북한 학습자에게 필요한 국어과 교수·학습 내용을 탐색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실행해 봄으로써 향후 국어교육 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연구와 관련을 맺는 선행연구들을 탐색함으로써 본 연구의 연구사적 의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통일 대비 국어교육 통합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크게 북한의 국어교육에 대한 연구(최현섭, 1993; 김민수, 1995; 정주리, 1997; 한철우, 1998; 윤희원, 1999; 소강춘, 2000; 허재영, 2002; 김양희, 2004a; 김양희, 2004b; 임창호 2012 등), 남북한 국어 교과서 비교 연구(최현섭 외, 1999; 이인제 외, 2000; 이동배, 2009 등), 남북한 국어교육 통합을 위한 기저 이론 연구(박영목·이인제, 1998; 최현섭 외, 1999; 이인제 외, 2000; 이인제, 2005; 이주행, 2006; 최용기, 2007; 전수태, 2010 등)로 나눌 수 있다.<sup>2)</sup> 이들은 향후 국어교육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로 본 연구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나 이러한 연구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의 적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따라서 본고는 남북한 국어교육 통합을 위한 국어과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행하는

---

1) 통일의 단계와 관련하여 이인제 외(2000)에서는 통일의 단계를 ‘통일 대비 단계-통일 직후 단계-통일 국가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

2) 이밖에도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등 개별 영역에서 남북한 국어교육 통합 문제를 논의한 연구들도 다수 개진된 바 있다.

것을 연구의 주안점으로 삼는다.

다음으로 ‘북한 이탈 주민’<sup>3)</sup>을 대상으로 한 국어교육 연구 역시 중요한 참고점이 된다. 대표적으로는 북한 이탈 주민의 언어 적응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한 문금현 외(2009)와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의 결과물인 권순희 외(2012a)와 권순희 외(2012b)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북한 이탈 청소년의 사상적 기반, 인지적·심리적 상태 등에 대한 다양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연구이나, 북한 이탈 청소년 대상 국어교육과 통일 대비 국어교육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전자의 경우 북한 이탈 청소년이 남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데 비해, 후자의 경우 통일 이후의 남북한 공통의 국어교육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남한의 국어교육에 ‘적응’을 목표로 하는 국어교육이 아니라 ‘민족 및 민족어의 동질성 회복’에 초점을 둔 국어과 교수·학습 내용 선정에 중점을 둔다.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 남북한 국어교육 통합을 위한 교수·학습 내용 선정의 과정 및 결과를 제시하고, III장에서는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과 전문가의 수업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가 남북 국어교육 통합에 주는 시사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3)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탈북자’, ‘새터민’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었다. ‘새터민’은 기존에 ‘탈북자’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순 우리말로 2005년부터 사용되었다. ‘새터민’은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고 긍정적, 미래지향적 이미지 재고를 위해 선정하였다. 통일부는 공식적인 용어로 법률용어인 ‘북한 이탈 주민’을 사용하되, 비공식적으로는 ‘탈북자’를 대신하여 ‘새터민’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기획재정부 누리집). 본고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 또는 ‘북한 이탈 청소년’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 II. 통일 대비 단계의 국어과 교수·학습 내용 선정

본고에서는 통일 대비 단계에 필요한 국어과 교수·학습 내용 요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남북한 국어교육 체계<sup>4)</sup> 및 교육과정<sup>5)</sup>,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남북한 국어교육 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북한 이탈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안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 면담을 실시하였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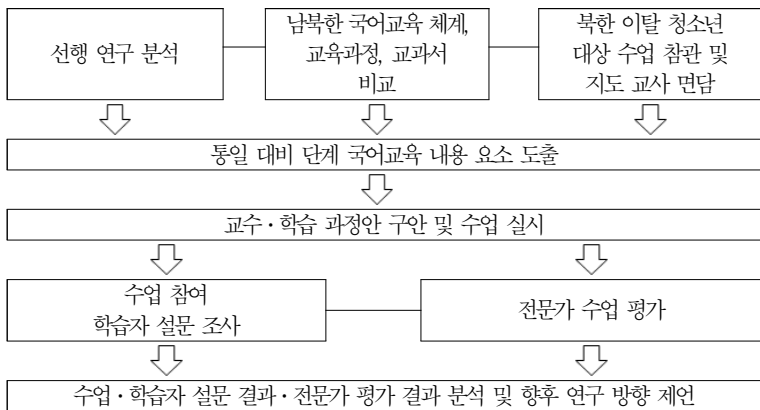
- 4) 남한의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12년 개편 이전 북한의 학제는 소학교 4년, 중학교 3년, 고등중학교 3년(2012년 이후에는 소학교가 5년으로 늘어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남북한 사이에 학제의 차이가 있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학년별로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남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북한의 소학교, 중학교, 고등중학교에 각각 대응시켜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되, 학년별로 비교하지 않고 학교급별로 전반적인 내용을 비교하였다.
- 5) 교육과정의 경우 남한은 2007 개정 교육과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국어교육의 목표, 내용 체계 및 내용 요소를 살폈다. 북한의 경우 남한의 교육과정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문서로 ‘교수요강’이 있는데 현재 남한에서 접할 수 있는 교수요강은 1984년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에서 편찬한 국어문학 고등중학교 4~6학년용이 유일하다. 따라서 북한의 교육과정은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국어교수안’, ‘국어교수참고서’ 등을 활용하여 보충하였다.
- 6) 북한 이탈 청소년 대상 국어교육과 통일 대비 단계의 국어교육은 목적과 내용에서 구분되지만, 최근 북한을 이탈한 청소년의 경우 교육과정과 교과서 등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현재 북한의 국어교육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대안학교 수업 참관을 통해 통일 대비 단계의 국어 수업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일정 부분 예상해 볼 수 있다. 수업 참관 후에는 수업 담당 교사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표 1> 북한 이탈 청소년 대안학교 수업 참관 내역

학교급	참관 장소	참관 일시	수업 주제
초등학교	두리하나 국제학교	2014년 10월 2일	이야기 간추리기
중학교	한겨레 중학교	2014년 10월 28일	음운의 변동
고등학교	한겨레 고등학교	2014년 9월 16일	정보 조직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국어교육 통합을 위해 남한 학습자와 북한 학습자 각각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을 도출하고, 그 중 일부를 교수·학습 과정안으로 구안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제 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을 녹화하고 수업 후 학습자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도출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고의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 절차

‘선행연구 분석’, ‘남북한의 국어교육 체계, 교육과정, 교과서 비교’, ‘북한 이탈 청소년 대상 수업 참관 및 지도 교사 면담’ 결과에 대해서는 고정희 외(2015)에서 상세히 다루어진 바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통일 대비 단계 국어교육 내용 요소를 도출한 논리적 근거와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및 전문가 평가에 대한 분석을 중심

으로 논의한다. 개발된 교수·학습 지도안 이면에 존재하는 교육 내용 선정의 논리 구축과 수업에 대한 반응과 평가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향후 통일 대비 국어과 교수·학습 내용의 개발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1. 통일 대비 국어과 교육 내용 선정의 전제

통일 대비 남북한 국어과 교육 내용 요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 이탈 청소년 교육과 통일 대비 단계의 국어교육과의 차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북한 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어교육은 대체로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교육 내용을 존중하기보다는 남한의 교육 체계에 흡수시키려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통일 대비 단계는 통일 직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적응’보다 ‘민족 및 민족어의 동질성 회복’에 중점을 둔 국어교육이 요구된다.<sup>7)</sup>

학습자로 하여금 민족 및 민족어의 동질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춘향전과 같이 남북이 공통으로 교육 제재로 삼고 있는 고전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왜 남한과 북한에서 이 작품이 꾸준히 향유되어 왔는지를 생각해 보며 남북한 모두가 인정

7) 통일부의 기본 통일 방침이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형성하고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여 남북한 간의 불신과 이질화를 해소하여 민족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복원하는 완전한 통일’이라는 점에서 이인제 외(2000: 82)에서는 국어교육의 통합 역시 ‘남북 언어의 동질성 회복, 민족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삼는다고 하였다.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민족 및 민족어의 동질성 회복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현재 남북의 언어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며, 현재의 문화 차이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향후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족 및 민족어의 동질성에 대한 인식과 남북한의 언어문화적 차이 이해는 상반되는 요소이라기보다는 통일 대비 단계에서 공존할 수밖에 없는 교육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 대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북한의 학습자들의 기초 문식성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북한 이탈 청소년 대상 선행연구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매우 많고, 이를 통해 통일 대비 단계에서 많은 북한 학습자들이 기초 문식성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일 대비 단계에서는 특히 북한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문식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통일 대비 단계에서의 국어교육 통합을 위한 교육 내용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볼 수 있다.

<표 2> 통일 대비 단계의 교육 내용 선정 기준

목표	민족 및 민족어의 동질성 회복	언어문화적 차이 이해 교육	기초 문식성 획득
대상	남북한 학습자 모두	남북한 학습자 모두	특히 북한 학습자
사례	춘향전 등 남북 공통의 고전문학 작품을 활용한 수업	남북한의 발음, 억양 차이 이해 및 올바른 태도 함양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등 기초 문식성 관련 활동

## 2. 영역별 교육 내용의 선정

본 연구는 통일 대비 남북한 국어교육 통합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그 목적이 학교급별로 모든 영역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 대비 단계에서 어떠한 교육 내용이 국어과에서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어과의 다섯 개 하위 영역을 고르게 다루기 위하여 학교급별로 영역을 분배하였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급에서는 ‘듣기·말하기’ 영역, 중학교급에서는 ‘읽기’와 ‘쓰기’ 영역, ‘문법’ 영역, 고등학교급에서는 ‘문학’ 영역의 교육 내용을 개발하였다.

교육 내용의 선정은 앞서 제시한 남북한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비교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졌고, 공동연구자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 영역이 <표 2>에 제시된 목표와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통일 대비 단계에 필요한 통합적 국어교육의 실천 양상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한 차시 분량의 교육 내용을 최종 선정하고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였다. 각 영역별 교육 내용 선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sup>8)</sup>

### 1) 듣기·말하기 영역의 교육 내용 선정

듣기·말하기 영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북한에는 ‘듣기’ 관련 내용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의 교과서는

8) 이어지는 영역별 교육 내용 선정 부분에서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결과 드러난 남북한 국어교육의 차이를 모두 제시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교육 내용과 관련된 부분만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남북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결과는 고정희 외(2015) 참조.



제재와 ‘런습’이라 부르는 간단한 학습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재 위에 ‘말하기교재’, ‘읽기교재’, ‘쓰기교재’라 하여 학습 영역을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영역 구분에서 ‘듣기교재’는 찾아볼 수 없으며, 교수요강 등에서도 듣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북한의 국어교육에서는 ‘듣기’ 영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음변, 선전, 선동’ 등의 말하기를 강조하고 있으며, 글을 읽을 때의 ‘읽기투’를 세분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도 큰 특징이다. 북한에서는 말하기 학습에 있어 대외적인 말하기 교육을 중시하는 반면, 남한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말하기 교육의 강조점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인제 외(2000:122)에서도 남북한 듣기·말하기 영역의 차이를 ‘남한에서는 말하기를 의사소통 행위의 하나로 보고, 상황과 맥락에 맞게 청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소통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보는 반면, 북한에서는 말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여 말을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 보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덧붙여 남북한 모두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다루고 있으나, 언어문화의 차이로 인해 구체적인 말의 높낮이, 말투, 표정, 몸짓 등에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반언어적 특징에 있어 남북한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지는데, 북한에서 연설조의 호소력 있는 말하기 방식을 선호함에 따라 말투에 있어서도 과장과 영탄이 빈번하게 사용되어 남한 학습자에게는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김혜정, 2013: 143).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 교육이 요구된다. 이상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남한 학습자와 북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듣기·말하기 영역의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별도로 설정하였다.

<표 3> 통일 대비 단계의 초등학교 듣기.말하기 교육 내용

영역	대상	교육 내용 요소	학습활동의 예
듣기.말하기	남한 학습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TV 속 말하기에 드러난 표정, 몸짓, 말투나 목소리의 높낮이의 요소를 구분할 수 있다.</li> <li>2. 남한과 북한의 말하기에 드러난 표정, 몸짓, 말투나 목소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li> <li>3. 서로 다른 문화에 따라 표정, 몸짓, 말투나 목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선생님이 보여주는 방송을 잘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li> <li>1) 방송에 나타난 남북한 사람의 말하기에 대해 다음 설명 중에서 골라 적절하게 빈칸을 채워 봅시다.</li> <li>2)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방송에 나타난 말하기 요소를 비교해 봅시다.</li> <li>3) 남북한 말하기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2)의 말하기 요소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고, 주위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 봅시다.</li> </ol>
	북한 학습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대방을 배려하는 대화의 필요성을 안다.</li> <li>2.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대화를 보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li> <li>3. 상대방을 배려하는 대화를 하는 방법을 익힌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대화 장면을 보고 대화를 마친 동생의 기분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자.</li> <li>2. 다음 대화 장면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 바람직한 대화로 고쳐 보자.</li> <li>3. 위에서 한 활동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자.</li> </ol>

남한 학습자들은 남과 북의 언어 및 언어문화의 이질화로 인하여 북한 학생들의 표정, 몸짓, 말투 및 억양을 어색하게 느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가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 학습자들의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지 않았을 것이므로 담화 유형으로 ‘대화’를 선정하였다. 또 듣기 관련 교육 내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화 교육 시에 대화 참여자가 화자이면서 동시에 청자임을 인식하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 2) 읽기·쓰기 및 문법 영역의 교육 내용 선정

남한에서는 교육과정에서 매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매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매체와 관련된 남북한의 차이는 읽기 영역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두드러지는 특징이므로 북한 학습자를 위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을 개발할 때에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sup>9)</sup>

쓰기 영역과 관련해서는 남한과 북한 모두 쓰기의 과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남한의 경우에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목적의 글쓰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글쓰기의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경우 텍스트의 종류에 상관없이 ‘제목 달기, 글감 고르기, 체계 세우기, 글다듬기’라는 단계를 설명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남한에서는 ‘기사문, 연설문, 사과하는 글, 정서 표현의 글, 기행문’ 등 글의 목적을 중심으로 텍스트의 유형을 분류하여 글쓰기의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글쓰기 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과 예시에 해당하는 개별 텍스트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학습자의 경우, 글쓰기 목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글쓰기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관련하여 김부경 외(2014: 128-132)에서는 이러한 남북한 쓰기 교육의 차이가

9)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인 권순희 외(2012b: 99)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과서를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국어 자료의 예로서 ‘설득 전략이 잘 나타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인터넷에 나오는 광고’, ‘매체 특성이 잘 나타난 문자 메시지, 전자 우편, 인터넷 게시판 또는 블로그의 게시 글 등’, ‘삶에 대한 고민이나 성찰을 담고 있는 다양한 매체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 이탈 청소년의 쓰기 태도 및 효능감 저하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북한 학습자에게 장르에 따른 쓰기 경험을 풍부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여 남한 학습자와 북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읽기·쓰기 영역의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4> 통일 대비 단계의 중학교 읽기·쓰기 영역 교육 내용

영역	대상	교육 내용 요소	학습활동의 예
읽기 · 쓰기	남북 학습자	1. 남북한 광고를 보고 광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할 수 있다. 2. 설명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다.	1. 남북한 광고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2. 남북한 광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 보자. 3. 남북한 광고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써 보자.

읽기와 쓰기를 통합하고, 남한 학습자와 북한 학습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다. 읽기와 쓰기를 통합함으로써 매체 이해뿐 아니라 설명하는 글을 쓰는 활동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복합적인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매체 교육은 남한 학습자에게는 비교적 익숙한 것이지만 북한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북한의 언어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아, 해당 요소를 남북한 학습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안하였다.

문법 영역의 경우 남한과 북한의 문법 체계가 다르다는 것을 가장 큰 차이로 볼 수 있다. 어문 규범도 세부 조항에서 차이를 보이는데<sup>10)</sup>, 특히 표준발음과 관련하여 남북한의 이질적인 발음 규범은

10) 남북한의 어문 규범의 차이에 대해서는 김택구(2001)을 참조할 수 있다.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왜 이질적인 발음 규범을 갖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준 발음법 조항 중 남북한의 표준 발음의 차이점을 보여줄 수 있는 ‘두음 법칙’과 공통점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개음화’를 사례로 선정하여, 남북한 어문규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문법 영역의 교육 내용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표 5> 통일 대비 단계의 중학교 문법 영역 교육 내용

영역	대상	교육 내용 요소	학습 활동의 예
문법	남북 학습자	1. 표준발음법의 의미를 이해한다. 2. 남한과 북한에서 나타는 발음의 차이를 인식한다. 3. 두음법칙과 구개음화를 적용하여 바르게 발음할 수 있다.	1. 다음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까요?(두음법칙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실패 사례) 2. 위와 같은 차이가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3. ‘ㄹ’이 소리 나는 위치와 방법을 알아봅시다. 4. 두음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 3) 문학 영역의 교육 내용 선정

북한에서는 ‘사상의 알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모든 문학 작품이 주체사상의 핵심을 잘 형상화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학의 효용 측면에서도 남한은 문학의 효용성을 개인 및 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사회적 측면에서의 효용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때 사회적 측면에서의 효용성이란 ‘수령에 대한 찬양과 충성, 당의 정책에 대한 홍보, 혁명 사상의 고

취, 대남·대미 적개심의 고취,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함양’ 등이다(이인제 외, 2010: 151).

제재 및 언어 자료에서는 남북한의 차이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남북한의 공통된 제재는 고전문학의 몇 작품에만 국한된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나 혁명이념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 좋은 문학 작품으로 평가되어 교과서에 실려, 문학 작품의 가치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여 교과서 제재로 선정하고 있는 남한과 대비된다.<sup>11)</sup>

이러한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통일 대비 단계의 교육 목표 중 하나가 민족 및 민족어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한이 공통으로 향유하고 있는 고전문학 작품을 제재로 문학 교육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문학 영역의 교육 내용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표 6> 통일 대비 단계의 고등학교 문학 영역 교육 내용

영역	대상	교육 내용 요소	학습 활동의 예
문학	남북 학습자	1. 남북한 모두 고전소설을 꾸준히 향유한 이유를 찾고, 이를 통해 민족문화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고전소설이 창작된 시대를 고려하여 작품에서 담고 있는 새로운 지향점을 찾을 수 있다. 3. 새로운 통일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쓸 수 있다.	1. 내가 선택한 <춘향전> 최고의 장면과 그 이유 2. <춘향전>이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3. <춘향전>이 창작된 시대를 고려하여 작품에 담긴 새로운 가치관 찾기 4. 통일 한국 사회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관 찾기

11) 북한의 문학 제재 선정의 기본 관점은 ‘수령에 대한 존경과 충성의 감정 고양, 집단과 조직에 대한 사랑과 적에 대한 증오심 및 비타협적 태도 고양, 미래를 사랑하는 혁명적 낙관주의 감정 형성, 아름다움을 옹호하기 위해 투쟁할 줄 아는 감정 형성’이다(이인제 외, 2010: 157).

물론 동일한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작품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해석은 동일하지 않다. 통일 대비 단계에서의 문학 교육은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이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향유해 온 작품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업은 학습자들이 남북한이 꾸준히 향유해 온 작품에 담겨 있는 가치를 찾아보고 통일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보는 데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Ⅲ. 통일 대비 단계의 국어과 교수·학습 실행 및 분석

#### 1. 수업 실행 및 분석 과정

앞서 제시한 내용 요소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고<sup>12)</sup>,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제 수업을 진행한 후, 수업을 녹화하여 분석하였다. 영역별 수업 실행 정보는 다음과 같다.

---

12) 본고는 고정희 외(2015)에서 개발한 통일 대비 단계의 국어과 교수·학습 지도안에 따른 수업 실행 결과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면의 제약상 본고에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개발된 교수·학습 지도안의 세부 내용은 고정희 외(2015) 참조.

〈표 7〉 영역별 수업 실행 정보

대상	학교급 - 영역	일시	장소
남한 학습자	초등 - 듣기·말하기	2014.11.28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
	중등 - 읽기·쓰기	2014.12.22	서울사대부설여중학교
	중등 - 문법	2014.12.22	서울사대부설중학교
	고등 - 문학	2014.12.08	서울사대부설고등학교
북한 이탈 청소년	초등 - 듣기·말하기	2014.12.29	하나원 하나들학교
	중등 - 읽기·쓰기	2014.12.18	한겨레중학교
	중등 - 문법	2014.12.18	한겨레중학교
	고등 - 문학	2014.12.18	한겨레고등학교

본고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실제 북한에 거주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북한 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 실시 후에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sup>13)</sup> 설문 문항은 아래와 같이 객관식 문항과 자유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하여 수업 목표의 도달 정도, 북한(남한) 또는 북한(남한) 학습자에 대한 이해 및 태도 측면, 통일 이후 통합적 국어교육에 대한 의견, 개선되어야 할 점 등에 대한 학습자의 응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3)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NO.1412/001-002).



<표 8> 학습자 설문 조사 내용

대상	문항	조사 내용	비고
남한 학습자	1	수업 목표 도달 정도	객관식문항 (5점 리커트척도)
	2	북한 또는 북한 학습자에 대한 이해	
	3	북한 또는 북한 학습자에 대한 태도 변화	
	4	남한 학습자 대상 효과성 여부	
	5	수업에서 어려웠던 부분	자유서술형 문항
	6	북한 또는 북한 학습자에 대한 생각(수업 전/후)	
	7	북한 학습자들과의 통합 수업 시 예상되는 문제점	
	8	수업의 개선점	
북한 이탈 청소년	1	수업 목표 도달 정도	객관식문항 (5점 리커트척도)
	2	남한 또는 남한 학습자에 대한 이해	
	3	남한 또는 남한 학습자에 대한 태도 변화	
	4	북한 학습자 대상 효과성 여부	
	5	수업에서 어려웠던 부분	자유서술형 문항
	6	남한 학습자들과의 통합 수업 시 예상되는 문제점	
	7	수업의 개선점	

영역별로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는 다음과 같다.

<표 9> 영역별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 정보

대상	학교급 - 영역	학습자 정보
남한 학습자	초등 - 듣기·말하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6학년 27명
	중등 - 읽기·쓰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3학년 30명
	중등 - 문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3학년 30명
	고등 - 문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3학년 25명
북한 이탈 청소년	초등 - 듣기·말하기	하나둘학교 초등부 15명
	중등 - 읽기·쓰기	한겨레중학교 3학년 8명
	중등 - 문법	한겨레중학교 3학년 8명
	고등 - 문학	한겨레고등학교 3학년 19명

수업 실시 후에는 수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마련하기 위해 경력 5년 이상의 현직 국어 교사 8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수업 평가를 실시하였다. 한 명의 교사가 각 영역의 남한 학습자 대상 수업, 북한 이탈 청소년 대상 수업을 보고 이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각 수업별로 2명의 교사가 수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가 수업 평가 문항은 실제 진행된 수업이 본 연구의 연구 목표에 부합하느냐와 관련된 주요 요소를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남한 학습자 대상 수업의 경우 ‘국어의식의 차이 극복, 수업 주제, 수업 제재(또는 자료), 학습자 수준, 수업의 효과, 제언’의 차원에서 수업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북한 이탈 청소년 대상 수업의 경우 ‘국어의식의 차이 극복, 수업 주제, 수업 제재(또는 자료), 수업 방식, 교사의 언어, 학습자 수준, 수업의 효과, 제언’ 차원에서 수업 분석이 이루어졌다.

## 2. 수업 분석 결과

수업 분석 결과는 수업에서의 학습자 반응, 학습자 설문 결과, 전문가 수업 평가 등에서 주요한 문제로 대두된 ‘언어적 차이 및 국어 의식의 차이 인식 측면’, ‘수업 주제 및 제재의 적합성 측면’, ‘학습자 수준 고려의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수업 분석 결과는 남한 학습자 대상 수업과 북한 이탈 청소년 대상 수업의 순서로 제시하고, 지면의 제약상 영역별로 전체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주요한 부분을 위주로 제시하였다.

## 1) 언어적 차이 및 국어의식의 차이 인식

남북한의 언어적 차이 인식 및 국어의식<sup>14)</sup>의 차이 인식은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므로 통일 대비 국어교육 통합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이인제 외(2000: 86)에서는 남북한 교육과정 통합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통일 대비 단계에서는 남북한 간에 언어의 차이가 생기게 된 이유, 북한의 언어 현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돕는 교육 내용의 마련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언어적 차이 인식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남북한 언어의 발음, 어휘, 문법 등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라면, 국어의식의 차이 인식은 국어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의 지식과 태도를 뜻하는 것으로 보다 심층적인 차원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1) 남한 학습자 대상 수업

먼저 남한 학습자 대상 수업에서는 남북한 국어의 차이에 대한 초보적인 차원의 인식에서부터 남북한의 국어의식에 대한 인식까지 다양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음은 초등학교 6학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듣기·말하기 수업의 일부이다.

교사: (남북한 뉴스를 보고) 동영상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발표해 볼게요.

학습자 1: 북한 아나운서는 힘차고 강한 느낌이었어요.

14) 국어의식이라는 용어는 논자에 따라 다양한 개념 폭을 지니고 있는 용어인데,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국어의식을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국어에 대한 지식과 태도’로 정의하였다. 남북한 국어의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김민수(1995), 권성아(2003) 등을 참조할 수 있다.

학습자 2: 북한 사람들은 말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학습자 3: 그리고 우리가 남한에서 많이 쓰지 않는 말을 써서 생소했어요.

교사: (중략) 남한 아나운서의 특징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학습자 4: 차분하고 점잖고 미미해요.

학습자 5: 남한 말은 부드러워서 이해하기가 훨씬 쉬웠어요.

학습자 6: 남한 말은 되게 뭔가 친근감이 느껴졌어요.

교사: 왜 그랬죠?

학습자 6: 남한 말은 앞에 뭐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북한은 할애기만 하고 그래서 친근감이...(초등-듣기·말하기 수업 전사 자료)<sup>15)</sup>

남북한의 반언어적 차이를 인식시키기 위한 활동에서 초등학교 학습자들은 북한 아나운서의 반언어적 특징과 남한 아나운서의 반언어적 특징의 차이를 인식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와 같이 차이의 원인을 생각해 보는 활동에서는 적절치 못한 응답이 나와<sup>16)</sup> 보다 심화된 인식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처치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 뭐였어요?

학습자 7: 말의 높낮이가 차이가 났어요.

교사: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학습자 7: 왜냐면 기후가 추우면 빨리 말해야지 느리게 말할 시간이 없잖아요, 추우니까. 생존을 해야 되니까 말이 빨라지고 남

---

15) 수업 내용을 전사하여 언어 규범에 맞게 제시하였다. 괄호 안의 내용은 연구자가 삽입하였다.

16) 앞서 언급했다시피 남북한의 반언어적 특징의 차이는 기후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언어를 통한 사상의 주입과 선전을 주요한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북한의 말하기 교육의 차이에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김혜정, 2013).

한은 기후가 그래도 따뜻하니까 말이 좀 천천히...(초등-듣기·말하기 수업 전사 자료)

다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진행된 문학 수업에서는 남북한이 <춘향전>을 유사한 관점에서 향유한다는 교사의 설명을 듣고 학습자들이 매우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막연히 남북한의 국어의식의 차이가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학습자들이 고전문학의 향유에 있어서는 비슷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도출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남북한 국어의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활동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적인 성격을 띠다고 볼 수 있다.

교사 : 북한에서는 이 소설(춘향전)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북한에서는 이 소설을 괜찮은 소설이라고 평가할 거 같아요? 안 배울 거 같아요? 북한에서는?

학습자 1 : 안 배울 거 같아요.

교사 : 배워요. 그러면 배울 때 뭐라고 배울 거 같아요?

학습자 2 : 안 좋은 거라고.

교사 : (중략) 북한에서는 뭐에 초점을 맞출 거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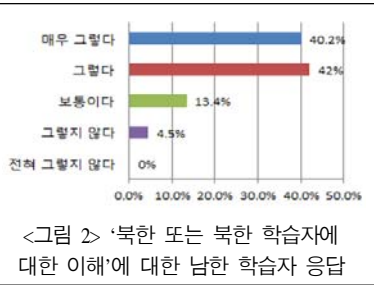
학습자 3 : 권선징악?

교사 : 북한은 웬지 탐관오리 권선징악, 이런 거 나오는데, 북한에서는 신분과 재산 모든 것을 뛰어넘는 남녀의 순수한 사랑이 굉장히 잘 드러난 굉장히 진보적인 소설이라고 평가해요.

학습자들 : 우와.(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임.)(고등-문학 수업 전사 자료)

학습자 설문 조사에서는 언어적 차이 및 국어의식의 차이 인식과 관련을 맺는다고 볼 수 있는 ‘이 수업을 통해 북한 또는 북한 학생

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sup>17)</sup>라는 문항에 대해 <그림 2>와 같이 긍정적으로 답한 학생이 82.2%에 달하였다. 그 이유로는 '북한 사투리를 사용해 보아서(초등-듣기·말하기)', '북한의 학생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알게 되



어서(중등-문법), '북한에서도 같은 고전문학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고등-문학)', '북한도 순수한 사랑을 주제로 한 소설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고등-문학)'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언어적 차이 및 국어의식의 차이 인식과 관련된 전문가 수업 평가에서는 대체로 적극적인 인식 도모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으나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북한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상대방(북한 학습자)을 생각하는 태도가 달라졌으므로 작게나마 영향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초등-듣기·말하기 수업 전문가 평가)

국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해하는 남한과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바라본다는 국어의식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중등-읽기·쓰기 수업 전문가 평가)

분단 이후 언어 변이의 원인을 찾으면서 남북한의 정치적 차이를 언급하였다. 북한의 주체사상 강조에 따른 언어 정책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에서 시작되었으나 언어 정책에 따라 달

17) 해당 문항이 언어적 차이 및 국어의식의 차이 인식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학습자들에게 국어의식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직접적인 인식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소 간접적인 문항으로 구성하였음을 밝힌다.

라진 남북한의 언어규범을 언급하여 북한의 국어의식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중등-문법 수업 전문가 평가)

특히 중학교 읽기·쓰기 수업의 경우 북한의 국어의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명시적 내용은 없었으나, 광고와 같은 일상적 텍스트에서도 사상 교육적 측면이 드러난다는 점을 제시하여 북한 사람들의 국어의식을 체감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평가하였다. 남북한 광고의 구체적 실현 양상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두 문화가 갖는 차이를 이해하게 하는 데에 적합하였으며, 북한의 정치와 문화의 일정 부분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또한 고유어를 살려 쓰는 북한의 언어문화를 접해, 남한의 언어문화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 (2) 북한 이탈 청소년 대상 수업

북한 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업 역시 남한 학습자 대상 수업과 유사하게 남북한 국어의 차이를 인식하는 활동에서부터 그 차이의 원인까지를 생각해 보는 활동에서 학습자들의 다양한 인식이 관찰되었다.

교사: (남북한 광고의 차이를 비교한 후)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이게 달라지게 됐을까?

학습자 1: 세대 차이?

학습자 2: 발달.

교사: 아 발달.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이 돼서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깐, 받아들이는 문화가 달라졌어요.

학습자 3: 미국하고 소련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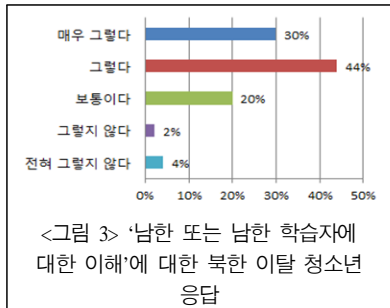
교사: 그렇죠. 남한은 주로 어디 문화를 받아들였을까요? 미국, 서구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미국이 하는 식으로 광고도 하고, 음악도 미국 음악을 사용하고, 그런 게 이제 많죠, 우리 문화를 조금 지키기보다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런데 북한은 또 어때요?

학습자 4: 자기 문화를 지켜요.

교사: 외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안에서 광고가 발전을 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달라진 거지.(중등-읽기·쓰기 수업 전사 자료)

위와 같이 중학교 3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읽기·쓰기 수업에서는 남북한 언어문화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북한 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학습자 설문 결과는 <그림 3>과 같이 나타났다. 남한 학습자 대상 설문 문항과는 달리 응답자들이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상태가 아니므로 ‘이 수업을 북한에 있는 학생들이 받는다면, 남한 또는 남한 학생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와 같이 가상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로부터 도출된 응답 결과는 직접적인 북한 학습자의 응답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하나 응답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74%의 학습자들이 이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해, 이 수업을 통해 남한 또는 남한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남한 또는 남한 학생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와 같이 가상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로부터 도출된 응답 결과는 직접적인 북한 학습자의 응답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하나 응답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74%의 학습자들이 이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해, 이 수업을 통해 남한 또는 남한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수업 평가에서는 남북한의 국어意識의 차이를



생각해 보는 동시의 자신의 국어의식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북한 자동차 광고 중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터를 잡으시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북한에서는 광고에서도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략) 북한 학습자가 자신의 국어의식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중등-읽기·쓰기 수업 전문가 평가).

사실, 자국의 국어의식 또는 자신의 국어의식에 대해서도 학습자들은 깊이 있게 사고해 본 경험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남한 또는 북한의 국어의식을 비교하기에 앞서 자신의 국어의식을 점검해 보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2) 수업 주제 및 제재의 적합성

수업 주제 및 제재의 적합성은 본 수업에서 다룬 주제와 제재가 본 연구의 목적, 즉 통일 대비 남북한 국어교육의 통합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와 관련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언어적 차이 및 국어의식의 차이 인식과도 관련을 맺는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일 이후 남북한 국어교육 통합 시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활동에서도 출된 학습자의 반응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1) 남한 학습자 대상 수업

먼저 초등학교 듣기·말하기 수업에서는 남북한의 반언어적 차이를 비교하면서, 북한의 말을 따라해 보는 활동을 기획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인식했을 뿐 아니라, 통일 이후 언어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교사: 북한 말 따라하면서 어땠는지 한번 누가 얘기해 볼까요?

학습자 1: 어색했는데 직접 해 보니까, 더 북한 말을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학습자 2: 저는 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몇몇 애들은 북한에 갔다 온 것 같이 잘 하는 것 같아요.

학습자 3: 잠시 동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교사: 새로운 세계를 갔다 온 것 같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북한에서 온 친구가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학습자 4: 저희가 북한 가면 느끼는 생각이 그대로 날 것 같아요.

학습자 5: 많은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요.

학습자 6: 내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느낄 것 같아요.(초등-듣기·말하기 수업 전사 자료)

한편, 동일한 수업에서 남북한의 언어적 차이 및 그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을 생각해 보는 동시에, 그러한 차이가 지역 방언의 차이로 이해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교사의 발화가 있었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되, 그 차이가 자연스러운 것임을 학습자들에게 인식시킨다면, 효과적인 통일 대비 국어 수업이 될 것이다.

교사: 북한말도 우리나라의 하나의 한반도의 지방의 방언이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친구가 잘 포용이 될까요? 이해가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학습자들: 네.(초등-듣기·말하기 수업 전사 자료)

또한 고등학교 문학 수업에서도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면서 민족어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교사와 학습자들이 공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 : 그러면 통일한국 사회가 만약에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했어. 그러면 같이 살아야 되잖아. 지금도 생각보다 북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 남한 사람이랑 북한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될 때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

학습자 1 : 일단은... 음... 그동안 남한과 북한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색 깔이 없어지지 않을 거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교사 : 사상. 정치적인 대립. 그렇다면 이에 대한 지향은 어떠해야 할 까?

학습자 2 : 일단은 통일이 된 만큼 기존에 남한이라는 범주와 북한이라는 범주 말고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서 그걸 중심으로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교사 :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이랑 한민족이라는 범주 안에 들 수 있는 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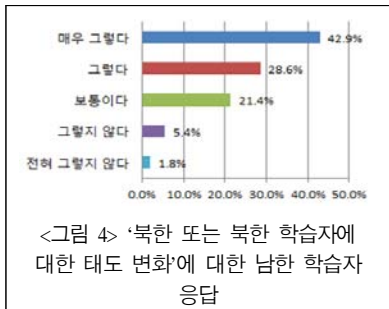
학습자들 : 머리색, 언어, 역사...

교사 : 과거사는 강조하는 바는 조금 다르지만 다 똑같죠. 언어, 역사, 우리 지금 배운 거?

학습자 3 : 문학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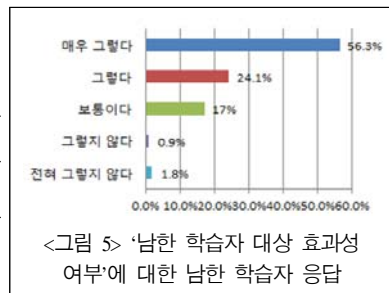
교사 : 응. 고전 문학 작품. 의식주. 이런 문화도 비슷하지. 한민족이라는 큰 범주를 설정해 놓고 정치적인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고등-문학 수업 전사 자료)

학습자 설문 조사에서는 수업 주제 및 제재의 적합성과 관련을 맺고 있는 ‘이 수업을 통해 북한 또는 북한 학생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문항에 대해 71.5%의 학습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보통이다’를 포함하여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습자의 비율(28.5%)이 <그림 2>에 비해서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습자의 응답 이유를 살펴보면 ‘수업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생각의 문제(중등-읽기·쓰기)’, ‘북한 학생에 대한 내용이 주가 아님(고등-문학)’ 등이다. 이를 통해 통합적 국어 수업에 부합하는 내용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한 차례 수업을 통하여 개인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한 학습자 대상 효과성 여부의 경우 ‘이 수업은 통일을 앞둔 상황에 있는 남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한 학습자 비율은



80.4%로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업 주제 및 제재의 적합성과 관련된 전문가 평가는 다양하였다. 먼저 듣기·말하기 수업에서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결과 중 듣기 관련 내용 요소에서 남북의 격차가 가장 크게 드러난 내용을 다루어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이는 데에 기여했을 것이며, 통합적 국어 교육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북한말에 대해 알게 된 것 이외에 북한에 대한 아이들의 마음가짐이 변하게 되었다.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과 북한 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이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하여 밝은 모습으로 비춰질 것을 기대하게 함으로 이 수업은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다(초등-듣기·말하기 수업 전문가 평가).

읽기·쓰기 수업 역시 남북한 광고의 구체적 실현 양상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두 문화가 갖는 차이를 이해하게 하는 데에 적합하였으며, 북한의 정치와 문화의 일정 부분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한편, 서로의 문화에 대한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로 광고는 적합하였다고 판단되나, 광고의 내용이 지니는 차이점을 따지기 전에 북한의 말투에서 오는 이질감을 크게 느낄 수 있어, 태도 관련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가 있었다.

수업에서 사용한 자료는 음향 및 음성까지 함께 있는 미디어 자료이다. 그러다 보니 교육 취지에 맞게 미디어의 내용이 지니는 차이점을 따져 차근차근 비교하기 전에, 첫인상에서 먼저 선동적인 북한의 말투에서 오는 이질감을 더 크게(위압적으로) 느낄 것 같다. 북한 미디어에서 왜 그런 말투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그

런 말투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할지에 대한 교육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중등-읽기·쓰기 수업 전문가 평가).

문법 수업 역시 북한 사람들의 언어생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동질성 회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 통일 대비 국어교육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한편, 북한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학습자의 인식이 생길 수 있어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sup>18)</sup>

수업 내용과는 관계없이 과도하게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북한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학습자의 인식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라고 생각한다(중등-문법 수업 전문가 평가).

18) 수업 전/후 북한 또는 북한 학생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써 달라는 문항에 대한 학습자 응답 중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맞춤법 및 띄어쓰기는 연구자가 수정). ‘긍정적 태도 -> 긍정적 태도, 또는 부정적 태도 -> 부정적 태도’와 같이 수업 전/후 태도의 변화가 없는 학습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부정적 태도 ->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10> 수업 전/후 북한 및 북한 학습자에 대한 인식 변화  
(중학교 문법 남한 학습자 대상 수업 설문 조사 결과 발췌)

학습자	수업 전	수업 후
학습자 1	말이 많이 다르다.	뿌리는 같다.
학습자 2	사투리가 이상하다고 생각	사투리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되어 그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학습자 3	언어를 다르게 쓰는 웃기는 예들. 왜 로동이라 하는지 몰랐다.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다. 알게 되어서 좋았다.
학습자 4	언어가 다 다르다.	언어가 같은데 조금 다르다.
학습자 5	한민족, 언어는 완전히 다른 것, 통일이 필요하다.	한민족, 언어마저도 같다, 통일이 필요하다.

(2) 북한 이탈 청소년 대상 수업

북한 이탈 청소년 대상 수업에서도 통일 이후 발생하게 될 문제를 생각해 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남한 학습자들이 통일 이후 발생하게 될 문제로 정치적, 사상적 대립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은 반면에, 북한 이탈 청소년들은 경제적 격차로 인한 남한 사람들의 차별, 남한의 광범위한 외래어 사용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 :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 통일 한국 사회에 뭔가 문제점이 있게 돼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학습자 1: 북한 사람들을 아직까지 못산다고 차별하는 게 있는데요...

교사 : 맞아 애들아. 광고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죠.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학습자 2 : 외래어를 많이 사용해서 잘 못 알아들어요.

교사 : 애들아 너희들 와서 언어가 많이 달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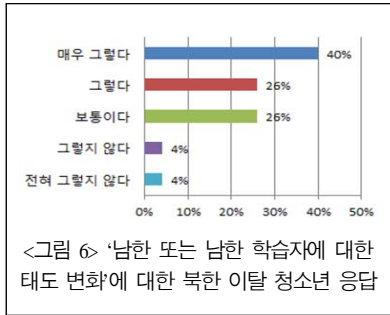
학습자들 : 네. 쓰레빠. 뽀쓰. 바게쓰.(고등-문학 수업 전사 자료)

이어서 학습자 설문 조사에서는 ‘이 수업을 북한에 있는 학생들이 받는다면, 남한 또는 남한 학생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66%로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통이다(26%)’라고 응답한 학습자가 ‘그렇다(26%)’라고 응답한 학습자와 같은 비율로 집계되어 남한 학습자의 응답 결과와 마찬가지로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보다 심화된 교육적 처치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 학습자 대상 효과성 여부의 경우 ‘이 수업은 통일을 앞둔 상황에 있는 북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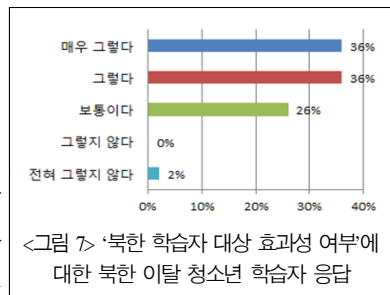
습자 응답 결과,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습자가 72%에 달해 수업의 효과성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수업 평가에서는 수업의 주제와 제재 측면에서 다양한 제언들이 제시되었다. 듣기·말하기 수업의 경우 대화 문화에 대한 상호 간의 이해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교류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다만 남한 학습자들도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남북한 학습자를 분리하여 수업하기 보다는 통합하여 수업할 때 함께 사용해야 할 주제라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문학 수업의 경우 남북한 공통 제재인 <춘향전>을 제시하여 동질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학습 목표는 적절하다고 보이나, 북한과 남한이 작품을 비교하는 관점의 차이를 살피는 과정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한 남한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되나 북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작품 등을 함께 다루어 차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북한 학습자들의 작품 이해와 관련된 학습 자료를 보충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인상적 장면을 꼽는 학습활동의 경우, 북한 학습자들은 어떤 장면을 가장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는지, 만약 남한 학습자



와 동일하다면 그 이유, 혹은 차이가 난다면 그 이유 등을 제시한다면 자신들의 생각과 비교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등-문학 수업 전문가 평가)

### 3) 학습자의 수준 고려

학습자의 수준에 대한 고려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수업이 해당 학습자들의 배경지식, 인지 능력, 교수·학습 경험 등에 비추어 적절했는지와 관련된다. 남한 학습자의 경우 해당 학년의 학습자들의 수준을 파악하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남한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수업이 계획되었으므로 학습자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 이탈 청소년의 경우 남한 입국 경로 및 체류 기간 등에 따라 문식성 수준의 편차가 커서 수업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북한 이탈 청소년 대상 수업을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1) 남한 학습자 대상 수업

남한 학습자 대상 수업의 경우, 남한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년이 설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수업의 내용이 학습자에게 어려웠다고보다는 오히려 이미 배운 내용을 반복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재도 중학교 1~3학년군의 내용으로 음운 변동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미리 해당 음운변동을 학습했다면 본시의 구개음화에 관한 설명이 너무 자세해 선행 학습 내용을 반복하는 셈이므로 학습자에게 쉽게 느껴질 것이다.(중등-문법 수업 전문가 평가)

중등 문법 수업의 경우 남북한 발음 규범의 차이를 인식시키는 활동보다는 두음법칙과 구개음화의 원리를 이해시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계한 수업이 통일 대비 국어교육 통합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언어, 북한 학습자들의 국어의식에 대한 내용 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양쪽에 동일하게 제공될 수 있는 통합적 교육 내용을 제시하려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쪽의 수준을 모두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춘향전의 줄거리 복습, 혹은 인상적 장면 찾기 등의 활동은 남한의 중학교 1, 2학년에서도 가능한 수준의 학습 활동이며 제시된 남한 학습자의 경우 중등 교육 과정의 최고 학년인 12학년이기 때문에, 더욱 사고력을 요하는 수준의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등-문학 수업 전문가 평가)

또한 고등 문학 수업 역시 춘향전의 내용 학습과 관련된 부분은 남한 학습자에게는 지나치게 평이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특히, '(남북한 학습자) 양쪽에 동일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양쪽의 수준을 모두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전문가의 평가는 향후 발생하게 될 통합적 국어교육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이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2) 북한 이탈 청소년 대상 수업

북한 학습자의 기초 문식성 저하 문제는 이미 여러 문헌<sup>19)</sup>과 북

19) 권순희 외(2012a)에 따르면 1990년대에 북한의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교육

한 이탈 교사의 증언을 통해 언급된 바 있는데, 북한 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본 수업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가 확인되었다. 남한에 들어온 기간이 비교적 짧은 학습자들로 구성된 초등학교 수업의 경우 글자 읽기와 같은 기초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가 있어 원활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

교사: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발표 안 해본 학생 중에. ○○이 맞죠?  
○○이가 일어나서. 경진(활동지에 제시된 이름)이 역할을 해주  
고. 민지(활동지에 제시된 이름) 역할은 누가 해볼까요? 안 했던  
친구 중에. ◇◇가 한 번 해볼까요?

학습자들: 입을 줄 몰라요

교사: 아, 그래요? 그러면 △△이?

학습자들: 할 줄 몰라요.(초등-듣기·말하기 수업 전사 자료)

또한 중학교 학습자의 경우 읽기는 가능하지만 쓰기는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 교사가 계획한 설명문 쓰기 활동 대신 설명하는 말하기로 활동을 대신한 학습자도 있었다.

교사: (남북한 광고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글 발표) OO이는 글씨 쓰는  
게 어려워서 쓰지는 못했지만, (발표) 준비를 했어요. 자 설명해  
주세요.

학습자 1: 일단 남한 광고와 북한 광고의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후략) (중등-읽기·쓰기 수업 전사 자료)

---

지원이 부족해지게 되었고, 현재는 개인이 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으며, 교사들도 재정적 지원이 끊기게 되어 장사 등 생업 전선으로 뛰어들게 되면서 사실상 북한의 교육 현실은 학업 결손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휘 능력과 관련해서도 북한 이탈 청소년들은 남한 학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남북한 어휘의 차이에 인한 것이고, 둘째는 북한 학습자들의 기초 문식성 저하에 따른 것이다. 아래의 수업 대화를 보면, 학습자들은 ‘열거’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데 실패하였고, ‘정의’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20)</sup>

교사: (설명하는 글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명 방법 설명 중) “사랑’에 대해 정의를 내려 보자.”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학습자 1: 좋은 점?

교사: (중략) ‘예시’는 뭐예요?

학습자 2: 예를 드는 것.

교사: (중략) ‘열거’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혹시 들어본 학생 있어요?

학습자들: ...

교사: (중략) 저 쪽에 있는 친구가 “나는 공통점이라는 말이 좀 어렵다.”라 했는데 ‘공통점’이라는 거는 뭐예요?

학습자 3: 똑같은 거.

교사: 같은 거. 그렇죠.(중등-읽기·쓰기 수업 전사 자료)

---

20) 남북의 어휘 차이가 북한 이탈 주민과 남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단절 및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점은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논의된 바 있다. 강보선(2013: 128-138)에서는 남북한의 어휘 차이 중 주로 문제가 되는 지점들 형태가 다른 어휘, 의미가 다른 어휘, 사용이 다른 어휘, 남한에서만 사용되는 어휘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열거’와 ‘정의’의 경우는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기보다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기초 문식성 저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열거’는 북한에서는 ‘열거’로 사용되어 두음법칙의 적용 차이에 따른 형태 및 발음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이해 불가능 정도는 아니고, ‘정의’ 역시 북한어 사전에 수록된 등재어이다.

아울러 수업에서 어려웠던 부분을 묻는 설문 문항에서는 ‘단어(용어)의 어려움(4명).’, ‘수업 자료의 낯섦(3명).’, ‘교사의 비유 및 설명의 어려움(2명).’, ‘수업 방식(설명식, 토론식, 발표식 등)의 어려움(2명).’, ‘무응답(39명)’으로 나타나 학습자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학습자가 아닌 북한 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현지 학습자들의 기초 문식성도 매우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통일 대비 국어교육 통합을 위해서는 북한 학습자들의 국어 능력을 진단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 수업 평가에서는 대체적으로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모둠 활동이나 교사와의 문답을 통한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수업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수업 중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현재의 자신의 인식 수준이 낮다는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북한 학습자를 향한 교사의 언어 수준은 대체로 적합하였다고 판단되나, ‘이거 뭔지 알아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등의 발화는 학습자에게 ‘너 북한에서 와서 이런 거 모르지?’와 같이 학습자에게 자신의 현재 인식 수준이 낮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발화라고 생각된다. 물론 교사는 학습자가 수업의 과정에서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적절히 피드백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대의 인지 상태를 너무 자주 확인하는 태도는 학습자에게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차원에서 학습자의 인지적 상태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중등-읽기·쓰기 수업 전문가 평가)

이와 같은 문제는 통일 이후의 통합적 국어 수업 환경에서 매우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북한 학습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불러오지 않으면서 통합적 국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IV. 결론

지금까지 통일 대비 남북한 국어교육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을 선정하여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수행해 봄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시사점을 크게 ‘언어적 차이 및 국어의식의 차이 인식 측면, 수업 주제 및 제재의 적합성 측면, 학습자 수준 고려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언어적 차의 및 국어의식의 차이 인식’과 관련하여 남북한 학습자들은 공통적으로 표면적인 남북한의 언어적 차이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인식하였으나, 그러한 차이가 생기게 된 원인, 차이의 기저에 존재하는 남북한 국어의식의 차이 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학습자들은 상대방의 국어의식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어의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언어적 존재로서의 나의 삶의 양식을 이해하며 실제 언어 행위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인식(신명선, 2007: 447)’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수업 주제 및 제재의 적합성’과 관련해서는 민족 및 민족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교육적 처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언어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남한 학습자들은 통일 이후 북한 학습자

들이 받게 될 차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북한 학습자들에게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정서적 공감이야말로 민족의 동질성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자칫 상호 간의 이질감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평가의 지적을 상기시켜 볼 때, 남북한 차이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그러한 차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해결해 보는 과정과 차이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교육이 수반되어야만 긍정적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수준 고려’와 관련해서는 남한 학습자와 북한 학습자 양측의 수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통합적 국어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통일 이후 남북한의 국어교육 통합이 완전히 대등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sup>21)</sup>과 북한 학습자들의 기초 문식성 저하를 고려했을 때, 같은 교육 내용이라 하더라도 남한 학습자들에게는 익숙하게, 북한 학습자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문화 시대의 국어교육 현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논의한 남북한 초·중·고등학교 국어교육 통합 방안과 이에 따라 개발한 교수·학습 지도안이 추후 남북한 국어교육 통합에 유의미하게 활용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 및 정책이 요구된다.

21) 남북한 국어교육 통합이 기본적으로는 남북한의 교육 내용을 대등하게 존중하는 방식을 택한다하더라도 분단 이후 이루어진 남한의 선진 국어교육 연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북한에서 ‘듣기’ 영역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남한에서 이를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첫째, 통일 대비 국어교육 통합을 위한 교육과정, 교과서, 교수·학습 차원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고는 남북한 초·중·고등학교 국어교육 통합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남북한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급별, 영역별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차원, 교과서 차원, 교수·학습 차원의 보다 구체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통일 대비 단계 및 통일 직후 단계에 국어교육이 남북한의 언어적 통합을 이루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한 학생들이 북한 이탈 청소년들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통합적 국어 수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남한 학생과 북한 이탈 청소년들과 같은 내용을 배우면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은 통합적 국어교육은 물론 남북의 언어적·정서적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설문 조사 결과 학습자들 역시 본 수업에서 아쉬웠던 부분으로 ‘직접 북한 학생과 수업하면 좋겠다(남한-중등 학습자)’, ‘북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남한-고등 학습자)’ 등을 지적할 만큼 통합적 국어 수업 환경은 그 교육적 효용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다시피 통합적 국어 수업은 남북한 학습자들의 수준을 모두 고려하는 데 있어 난점이 존재하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수업 환경을 조성할 일선 학교를 선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범대학 차원에서 ‘통일 실험학교’<sup>22)</sup>를 운영하거나, 사범대학 부설학교 등에서 통합적 수업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 성과들을 통합적으로 수용하고 이

2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는 향후 ‘통일 실험학교’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박성춘 외, 2015).



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여 연구의 효율성,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통일 시대 남북한 국어교육 통합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연구 목표와 연구 대상, 연구 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통합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통일 대비 단계에 초점을 두고 남북한 국어교육 통합 방안을 논의하였기 때문에, 통일 직후 단계, 통일 국가 단계에서의 교육 과정 또는 교과서 등에 대해 논의한 다른 연구와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 방향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자료>

#### 1. 남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 『초등학교 국어 5-1(듣기·말하기·쓰기)』, (주)미래엔.  
 교육과학기술부(2011), 『초등학교 국어 5-1(읽기)』, (주)미래엔.  
 교육과학기술부(2011), 『초등학교 국어 6-1(듣기·말하기·쓰기)』, (주)미래엔.  
 교육과학기술부(2011), 『초등학교 국어 6-1(읽기)』, (주)미래엔.  
 교육과학기술부(201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2013), 『초등학교 국어-1, 2학년군-1 ㉠』, (주)미래엔.  
 교육과학기술부(2013), 『초등학교 국어-1, 2학년군-1 ㉡』, (주)미래엔.

\* 이 논문은 2015. 11. 20. 투고되었으며, 2015. 11. 26. 심사가 시작되어 2015. 12. 4.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5. 12. 13.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 교육과학기술부(2013), 『초등학교 국어-3, 4학년군-1 ㉠』, ㈜미래엔.
- 교육과학기술부(2013), 『초등학교 국어-3, 4학년군-1 ㉡』, ㈜미래엔.
- 교육과학기술부(2013), 『초등학교 국어활동-1, 2학년군-1 ㉢』, ㈜미래엔.
- 교육과학기술부(2013), 『초등학교 국어활동-1, 2학년군-1 ㉣』, ㈜미래엔.
- 교육과학기술부(2013), 『초등학교 국어활동-3, 4학년군-1 ㉤』, ㈜미래엔.
- 교육과학기술부(2013), 『초등학교 국어활동-3, 4학년군-1 ㉥』, ㈜미래엔.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2,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 김종철 · 이명찬 · 김종옥 · 양정호 · 황혜진 · 신중진 · 조하연 · 김소영 · 주재우 · 박소영 · 노수경 · 박재희 · 이주영 · 김민선 · 박수현 · 박인규(2012), 『중학교 국어 1』, 천재교과서.
- 김종철 · 이명찬 · 김종옥 · 양정호 · 황혜진 · 신중진 · 조하연 · 김소영 · 주재우 · 박소영 · 노수경 · 박재희 · 이주영 · 김민선 · 박수현 · 박인규(2012), 『중학교 국어 2』, 천재교과서.
- 김종철 · 이명찬 · 김종옥 · 양정호 · 황혜진 · 신중진 · 조하연 · 김소영 · 주재우 · 박소영 · 노수경 · 박재희 · 이주영 · 김민선 · 박수현 · 박인규(2012), 『중학교 국어 3』, 천재교과서.
- 김종철 · 이명찬 · 김종옥 · 양정호 · 황혜진 · 신중진 · 조하연 · 김소영 · 주재우 · 박소영 · 노수경 · 박재희 · 이주영 · 김민선 · 박수현 · 박인규(2012), 『중학교 국어 4』, 천재교과서.
- 김종철 · 이명찬 · 김종옥 · 양정호 · 황혜진 · 신중진 · 조하연 · 김소영 · 주재우 · 박소영 · 노수경 · 박재희 · 이주영 · 김민선 · 박수현 · 박인규(2012), 『중학교 국어 5』, 천재교과서.
- 김종철 · 이명찬 · 김종옥 · 양정호 · 황혜진 · 신중진 · 조하연 · 김소영 · 주재우 · 박소영 · 노수경 · 박재희 · 이주영 · 김민선 · 박수현 · 박인규(2012), 『중학교 국어 6』, 천재교과서.
- 김종철 · 이명찬 · 김종옥 · 양정호 · 황혜진 · 신중진 · 조하연 · 김소영 · 주재우 · 박소영 · 노수경 · 박재희 · 이주영 · 김민선 · 박수현 · 박인규(2013), 『고등학교 국어Ⅱ』, 천재교과서.

김종철 · 이명찬 · 양정호 · 김종옥 · 황혜진 · 신중진 · 조하연 · 주재우 · 임호원  
· 박혜영 · 이진용(2013), 『고등학교 국어 I』, 천재교과서.

윤여탁 · 조광국 · 이병운 · 김진식 · 윤석민 · 최미숙 · 구분관 · 김정우 · 박종훈  
· 노지승 · 정정순 · 김주익 · 김나영 · 최미애 · 김기훈 · 조성환 · 김수  
학 · 김화옥 · 강용철 · 김영은 · 이현진 · 신온누리(2012), 『중학교 국어  
1』, ㈜미래엔.

윤여탁 · 조광국 · 이병운 · 김진식 · 윤석민 · 최미숙 · 구분관 · 김정우 · 박종훈  
· 노지승 · 정정순 · 김주익 · 김나영 · 최미애 · 김기훈 · 조성환 · 김수  
학 · 김화옥 · 강용철 · 김영은 · 이현진 · 신온누리(2012), 『중학교 국어  
2』, ㈜미래엔.

윤여탁 · 조광국 · 이병운 · 김진식 · 윤석민 · 최미숙 · 구분관 · 김정우 · 박종훈  
· 노지승 · 정정순 · 김주익 · 김나영 · 최미애 · 김기훈 · 조성환 · 김수  
학 · 김화옥 · 강용철 · 김영은 · 이현진 · 신온누리(2012), 『중학교 국어  
3』, ㈜미래엔.

윤여탁 · 조광국 · 이병운 · 김진식 · 윤석민 · 최미숙 · 구분관 · 김정우 · 박종훈  
· 노지승 · 정정순 · 김주익 · 김나영 · 최미애 · 김기훈 · 조성환 · 김수  
학 · 김화옥 · 강용철 · 김영은 · 이현진 · 신온누리(2012), 『중학교 국어  
4』, ㈜미래엔.

윤여탁 · 조광국 · 이병운 · 김진식 · 윤석민 · 최미숙 · 구분관 · 김정우 · 박종훈  
· 노지승 · 정정순 · 김주익 · 김나영 · 최미애 · 김기훈 · 조성환 · 김수  
학 · 김화옥 · 강용철 · 김영은 · 이현진 · 신온누리(2012), 『중학교 국어  
5』, ㈜미래엔.

윤여탁 · 조광국 · 이병운 · 김진식 · 윤석민 · 최미숙 · 구분관 · 김정우 · 박종훈  
· 노지승 · 정정순 · 김주익 · 김나영 · 최미애 · 김기훈 · 조성환 · 김수  
학 · 김화옥 · 강용철 · 김영은 · 이현진 · 신온누리(2012), 『중학교 국어  
6』, ㈜미래엔.

윤여탁 · 조광국 · 이병운 · 김진식 · 윤석민 · 최미숙 · 구분관 · 김정우 · 박종훈  
· 노지승 · 정정순 · 김주익 · 김나영 · 최미애 · 김기훈 · 조성환 · 김수  
학 · 김화옥 · 강용철 · 김영은 · 이현진 · 신온누리(2013), 『고등학교 국

어 I』, (주)미래엔.

윤여탁·조광국·이병운·김진식·윤석민·최미숙·구본관·김정우·박종훈  
·노지승·정정순·김주익·김나영·최미애·김기훈·조성환·김수  
학·김화옥·강용철·김영은·이현진·신온누리(2013), 『고등학교 국  
어Ⅱ』, (주)미래엔.

## 2. 북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자료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1984), 『교수요강 국어문학 고등중학교 4~6학년용』,  
교육도서출판사.

김성우·오정환(2009), 『문학 중학교 6』, 교육도서출판사.

김성우·오정환·리동수·왕광수·문재홍(2012), 『문학 중학교 5』, 교육도서  
출판사.

김승룡·서재길·최문희·리광섭(2012), 『국어 중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김승룡·서재길·최문희·전병두·윤경수·리광섭(2012), 『국어 소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김지현·김창덕·리광섭(2012), 『국어 소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김창덕·윤근작·서재길·최문희·전명봉·리광섭(2012), 『국어 소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류명은·리광섭·황철명·윤경수·김영희·김영옥·김현식(2000), 『국어교수  
참고서 고등중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리광섭·서재길·림성웅·김병찬·김동순·윤경수·홍기천(2009), 『국어 소  
학교 4』, 교육도서출판사.

리기형·왕광수·한춘옥·문재홍·리광섭(2003), 『국어 중학교 2』, 교육도서  
출판사.

전장길·문재홍·황철명·리광섭(2011), 『국어 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최준영·서재길·류병설(2001), 『국어문법 고등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최준영·서재길·류병설(2001), 『국어문법 고등중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최준영·서재길·류병설(2002), 『국어문법 고등중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논저>

- 강보선(2013),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용 어휘의 유형 및 선정 방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7, 국어교육학회, pp.125-152.
- 고정희·김종철·구본관·민병곤·위현길·김호태·윤구희·이은정·차경미·조진수·문찬란·김진아·삼미진(2015), 『남북한 초·중·고등학교 국어교육 통합을 위한 기초 연구 - 국어의식 및 국어교육 체계의 차이 극복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육연구진흥본부.
- 권성아(2003), 『헌법 개정에 따른 북한의 교육이념 변화 - 국어와 공산주의 도덕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1-2, pp.145-171.
- 권순희·원진숙·김은성·주재우·이슬비·이수연(2012a), 『탈북학생 지도용 국어과 교육과정 표준안 개발: 초등』, 한국교육개발원.
- 권순희·원진숙·김은성·주재우·이슬비·이수연(2012b), 『탈북학생 지도용 국어과 교육과정 표준안 개발: 중등』, 한국교육개발원.
- 김민수(1995), 『북한의 언어정책과 국어교육』, 『어문연구』 23-1, 어문연구학회, pp.140-146.
- 김부경·김대회(2014), 『탈북학생의 쓰기 태도와 쓰기 효능감 양상 연구』, 『작문연구』 21, 한국작문학회, pp.125-149.
- 김양희(2004a), 『80년대 이후 북한의 <국어> 교과서 연구』, 『국어교육연구』 13,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pp.373-403.
- 김양희(2004b), 『북한 국어과 교과서에 나타난 수령 형상』, 『국어교육』 113, 한국국어교육학회, pp.143-174.
- 김택구(2001), 『남·북한 언어 규범의 비교와 통일방안의 모색』, 『인문과학연구』 9, 안양대 인문과학연구소, pp.27-79.
- 김혜정(2013), 『남북한 언어 이질화와 그 극복을 위한 교육 방안 - 북한의 광고와 뉴스 담화의 화용적 분석을 토대로』, 『한말연구』 33, 한말연구학회, pp.137-163.
- 문금현·이홍식·김경령·이영희·김나영·신유진(2009), 『새터민 언어 적응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 박성춘·조영달·권오현·윤여탁·박성혁·김병연·김태환·배영애·이슬기·이하나·전진현·진가연·백민아(2015), 『통일 후 남북한 초·중등학교 통합과 통일 실험학교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육연구진흥본부.
- 박영목·이인제(1998), 『통일에 대비한 국어교육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15-1, 이중언어학회, pp.269-293.
- 소강춘(2000), 『북한의 국어교육 실태 연구 - 고등중학교 1,2학년 ‘하반학기 국어교수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03, 한국국어교육연구회, pp.209-244.
- 신명선(2007), 『문법 교육에서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8, 국어교육학회, pp.423-458.
- 윤희원(1999), 『북한 지역 국어교육의 현황』, 『신청어문』 27-1, pp.211-225.
- 이동배(2009), 『해방 후 시기의 남북한 초등국어 교과서 비교연구』, 『새국어교육』 83, 한국국어교육학회, pp.337-356.
- 이인제·최미숙·송현정·이재기·민병근(2000), 『남북한 초·중등 국어과 교육 과정 및 교과서 통합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주행(2006), 『남한과 북한의 언어문화에 관한 고찰』, 『국어교육』 121, 한국어교육학회, pp.215-244.
- 임창호(2012), 『북한 소학교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김일성 부자의 이상화 개념과 서술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30, 한국기독교교육학회, pp.287-316.
- 전수태(2010), 『남북통일시대의 국어교육의 방향 - 분단국의 통일 공간과 교육 용어』, 『국어교육』 131, 한국어교육학회, pp.1-8.
- 정주리(1997), 『북한의 국어와 국어교육』, 『한국어학』 6-1, 한국어학회, pp.99-116.
- 최용기(2007), 『남북한 언어 차이와 동질성 회복 방안』, 『국학연구』 10, 한국국학진흥원, pp.199-228.
- 최현섭 외(1999), 『남·북한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 연구』, 역락.
- 최현섭(1993), 『북한 국어교육 이론 고찰 - <국어 교수법> 분석을 중심으로』,

『한글』 222, 한글학회, pp.115-150.

한철우(1998), 『북한 국어교과서의 체제와 내용』, 『한국어문교육』 7, 한국교원  
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pp.313-343.

허재영(2002), 『북한 고등중학교 1학년 <국어>의 체제와 내용』, 『한말연구』 11,  
한말연구학회, pp.347-379.

<인터넷 누리집>

기획재정부 누리집:

<http://www.mosf.go.kr/news/news05a.jsp?actionType=view&runno=6022>

통일부 통일교육원 누리집: <http://uniedu.go.kr/uniedu/main/main.do>

■ 국문초록

**남북한 초·중·고등학교 국어교육 통합을 위한 기초 연구**

- 통일 대비 단계의 국어과 교수·학습 내용 선정 및 수업 분석을 중심으로 -

**고정희 · 김종철 · 구본관 · 위현길 · 윤구희 · 김호태 · 이은정 ·  
조진수 · 차경미 · 문찬란 · 김진아 · 심미진 · 민병곤**

이 연구는 통일 대비 단계에서 남북한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서 수행해 봄으로써 통일 이후 국어교육 통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남북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하고, 북한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북한 이탈 청소년 대안 학교를 참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 대비 남북한 학습자를 위한 교육 내용을 선정하여 교수·학습 과정안을 구안하였다. 구안된 교수학습 과정안을 활용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제 수업을 실시하고, 수업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학습자 반응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수업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크게 ‘언어적 차이 및 국어의식의 차이 인식 측면’, ‘통일 대비 국어교육 통합을 위한 수업 주제 및 체계의 적절성 측면’, ‘학습자의 수준 고려 측면’에서 수업을 분석하여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마련하였다.

[주제어] 국어교육, 통일 대비 국어교육, 민족어 교육, 수업 실행, 수업 분석



■ Abstract

## Basic Research for Unifying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 Education

– Focusing on the Development and Analysi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Contents in Preparation Unification –

Ko, Jeong-Hee · Kim, Jong-cheol · Koo, Bon-Kwan ·  
Wi, Hyeon-Gil · Yun, Gu-Hui · Kim, Ho-Tae ·  
Lee, Eun-Jeong · Jo, Jin-Su · Cha, Kyung-Mi ·  
Moon, Chan-Ran · Kim, Jin-A · Sim, Mi-Jin · Min, Byeong-gon

This study aims to develop Korean language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which is necessary in preparation the unification of Korea. These contents and methods, will then be applied to a classroom setting and guidelines for unify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Provided.

To develop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we analyzed the curriculum and textbooks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those for North Korean youth refugees. In addition, we observed classes in alternative schools for North Korean youth refugees. We created teaching-learning lesson plans, applied those to a classroom setting, surveyed the students, and requested current teachers to evaluate the class.

Based on the above information, we analyzed the lessons according to the following points: a consciousness of language differences and differences in language consciousness, appropriateness of class topics and teaching materials, and consideration of the learner's ability. This helped us prepar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ethnic language education, instructional performance, class analysis